

## (주)태왕 노기원 대표이사 명예훼손... 고소 당했다

고소인, 노 대표이사 허위사실을 조합임원들 및 지인들에게 말해 자신의 명예 크게 실추... 주변서 조만간 구속된다 말까지 들어 너무 억울해 진실 '꼭' 밝혀야...

봉덕동사랑마을6단지조합과 임원들이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태왕이앤씨가 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융 및 재산 가압류를 하면서 태왕을 향한 원망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조합측은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가 공동시행사를 맡은 동흥건설과

손을 때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태왕은 봉덕동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다.

조합측은 태왕의 이같은 행동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발을 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급기야 동흥건설 고흥무대표가(주)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이사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소했다.

고소는 지난달 19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표이사가 허위사실유포 및 적시로서 신의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게 이유다.

고 대표는 "노 대표이사의 이같은 언행이

계속되면 각종 의혹 등을 폭로한다"는 강경 태세를 보였다.

노 대표이사는 조합측에 "봉덕동사랑마을6단지, 이전동사랑마을2단지 등 3개 단지 조합이 (주)동흥건설에 공동시행 수수료를 부당하게 선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흥건설이 조합에서 지급받은 자금을 위법하게 사용, 이것은 조합 및 동흥건설 관련자간의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가 지의심된다"고 했다.

노 대표이사의 이같은 말에 고 대표는 "마치 조합과 (주)동흥건설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공언히 유포하고 문서에 적은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 대표는 "조합측이 동흥건설에 지급한 수수료는 공동시행계약서 제4조(공동시행 수수료 및 지급방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태왕이 조합 측과 동흥건설을 이간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공문을 보냈다"고 목청을 높였다.

고 대표는 노 대표이사가 허위사실을 유포, 동흥건설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 지난해 9월13일 태왕 사무실에서 노 대표이사, 태왕측 관계자와 봉덕동 사랑마을6단지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들이 자리를 했다.

고 대표의 이 자리에서 노기원 대표이

사가 "동흥건설에서 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들의 건축사업상 무지를 이용, 수수료를 과다 책정한 것은 잘못된 사기계약이라고 조합원들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고 대표의 이러한 말들이 나돌자 "주변에서는 조만간 구속된다 말까지 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노 대표가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말한 것은 여론몰이로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모든 책임을 동흥건설에 전가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단정지었다.

어쨌든 고 대표가 노 대표이사를 고소하면서 법적공방을 예고,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조여은 기자



등번호 '2.1' 이철우 지사, K리그 김천 홈 개막전 시축  
천삼무FC가 지난해 K리그2 우승에 이어 K리그1에서도 건승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지사가 9일 김천시민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김천삼무프로축구단(이하 김천삼무FC) 홈 개막 경기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축했다. 이 지사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양 팀 서포터즈와 김천시민들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



! 단체장 일정 !



최기문 영천시장은 11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3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1일 오전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과장 및 읍·면소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 APEC 경주유치... 세계 관광은 경주로 통한다

경주 대한민국 관광산업시초 1978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만 돌파 관광산업 금지탑 포함·경주공항에 '국제노선' 전세기 취항 국제1관광도시 면모 위상 완벽하게 갖춘다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는 경주 뿐...당위성 설득력 얻어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위상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남은것은 유치뿐이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연안 21개 회원

### → 글심는 순서 ←

1. 총괄
2. APEC 정상회의 유치 경주뿐
3. 개최지 결정, 정치 잣대 '안돼'
4. 세계적 관광은 경주로 통한다
5. 경제 파급 효과...경주가 잘산다
6. 맺는말

국이 모이는 연례회의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0%, 국내총생산(GDP)의 약 59%, 교역량의 5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단순 회의나 도시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 상공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제회의"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과 APEC의 포용적 성장까지 실현 최적 도시 경주에 유치되어야 할 명분과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주시장은 "APEC 유치 146만 경주지 지 등 전 국민적 경주유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서면심사·현장실사 철저한 준비 등 타 도시와 차별화된 유치전략, 중앙정부 등 전

방위 유치 세일즈, 민간주도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전개 등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준비, 행정력을 총동원해 꼭 유치한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사활건 경주는 세계관광도시다.

세계 관광은 경주로 통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 경주는 그만큼 발길이 닿는 어느 곳이든 문화유적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밤이면 더 빛나는 동궁과 월지를 비롯해 허허벌판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첨성대.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불국사 석굴암까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다.

경주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시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적극적인

경주 개발로 천마총, 보문관광단지 등이 개발됐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으면서 1978년엔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돌파에 성공하는 관광산업 금지탑 세웠다.

도시 전체가 문화재 천지다.

남산·도함산을 포함하는 경주 시내 유적 지구들이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국보와 보물이 넘쳐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 당동마을, 옥산사원까지 포함 4번 지정됐다.

지난해 여행 여론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3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 경주시가 5위에 올랐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나선 제주시는 28위에 그쳤다.

김성용 기자

##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 국힘 경북 13개 선거구 석권할 수 있나?...

최경환, 이재원 무소속 출마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 박형수-김재원 '경선' 경쟁 청송·영덕 표심 얻는 후보 공천권 거머쥘 가능성 높아

TK지역은 국힘의 텃밭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영원불패 지역이다. 때문에 22대 4.10 총선에서 13개 선거구 석권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모조리 석권했다. 9일 기준 경북 13개 선거구 중 10개 선거구가 공천을 확정했다.

3개 선거구가 경선을 진행 중이다. 공천이 확정된 10개 선거구 중 2개 지역에서 보수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경선 선거구에서는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5선에 도전했다.

경선에서 4선을 지낸 최전 부총리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복역하던 중 2022년 3월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최 전 부총리는 '정치적 희생양'이었음을 주장하며 "선거에 이겨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 현역 초선인 윤두현 의원이 "부패 세력의 화귀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불출마를 선언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실 행정관을 지낸 조지연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당 조직을 갖고 있는 조예비후보가 무소속 최예비후보를 상대로 국회의원 배치를 쟁취할 수 있을지가 지역정가의 관심거리다.

포항북구 선거구에서는 공천 탈락한 이재원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을 거쳐 재선 현역인 김정재 의원을 공천, 이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경선에서 배제되자 그는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포항북에 대한 교체 지수가 58%에 이르고 있는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은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시민들의 반감이 거세면 안 된다"며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수가 승리해야 된다"며 무소속 출마를 했다.

## 4·10 총선 국민의힘 vs 민주당 대진표 확정 지역-경북



다"며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수가 승리해야 된다"며 무소속 출마를 했다. 안동예천, 구미, 의성청송영덕울진 등 3개 지역구에서는 경선이 진행 중이다. 막판에 경선 결정되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안동예천지역은 10-11일 이틀간 경선이 진행된다.

이 지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현역 김형동 의원과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본선행 티켓을 두고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지방총합



### 군위군의회,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렴교육

군위군의회는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청렴 실천을 위한 선서에 이어 서약서를 작성했다.

군의회는 소속 의원과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정한 직

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함께 했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주관하에 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속 민대홍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행동강령 등 교육과 다양한 사례로 이해도를 높였다.

# 수성구, 일자리 창출 창업 구심점 역할 톡톡

##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2년 연속 전국 평가 A

수성구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와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2023 전국 센터 성과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연속 'A(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46곳, 중장년기술창업센터 3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수성구는 센터관리, 운영실적, 기업성과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거둔 쾌거다.

수성구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기술력을 가진 1인 기업을,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기술을 보유한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발굴해 지원하며 수성구와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모로 선정된 기업에 창업 공간과 회의실을 제공하고 창업활동비, 맞춤형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기술·법률 자문,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200개 1인창조기업, 134개 중장년 기업을 육성, 일자리 창출과 창업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난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졸업 기업은 2023년 기준 고용창출 27명, 매출 32억 72백만원, 정부공모사업 선정 24건 558백만원, 지식재산권 35건 등록, 대외수상 7건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졸업 기업도 지난해 44억 1500만원, 지식재산권 7건 등록, 정부지원사업 2개 선정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13년 센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관·학이 촘촘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창업환경 개선,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창업 활동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동에 있는 수성구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내달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3층으로 확장 이전하며 육성 기업도 30개에서 36개로 늘린다.

## 달성군, 문화·교육 어우러는 선도지역 건설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청

달성군은 지난 8일 대구교육청과 학교복합시설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시설부지 등에 복합 시설(교육·문화·복지 등의 공동 목적의 시설)을 설치,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한다.

해당 공간이 지역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은 강은희 교육감, 최재훈 달성군수 등이 참석, 진행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사업시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부지 공동 활용 및 사업추진 방안 마련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이 포함됐다.

각 기관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약속하였다.

군은 3월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에 추진 중인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신청한다.

공모에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와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변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가 주민과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복합문화센터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선도적인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조여은 기자



### 매주 수·금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

수성구청이 구립 함정종합사회복지관의 무료급식소 개소를 기념, 지역 어르신 200여 명에게 기념 특식을 제공했다. 행사는 지난 6일 열렸는데 민족통일대구수성구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소량봉사단 등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힘을 보탰다. 함정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는 매주 수·금요일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 중식을 제공한다. <사진=수성구 제공>

## 민주평통 군위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방안 정책건의 의견수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군위군협의회가 마련한 '2024 1분기 정기회의 및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방안 정책건의 의견수렴 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회의는 지난 7일 열렸는데 대행기관장인 김진열 군위군수와 이우석 군위군협의회장 등 군위군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및 대행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는 2024년도 1분기 군위군협의회 활동사업 평가 및 2024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된 의장인 대통령 담화에 대한 주제 영상 상영,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열렸다.

정기회의는 관내 북한이탈주민이 참석하여 자문위원과의 자유토론을 했다.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께서 강조한 북한이탈주민 포용 및 지원방안에 대해 군위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우석 민주평통 군위군협의회장은 "북한이

탈주민과 자유토론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사업도 구체화 되어 의미있는 회의였다"라며 앞으로 군위군협의회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불려일으켰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통일 기반조성과 군위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공식적인 법정 회의로 지역협의회별로 정책건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자리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의 민주평통 군위군협의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구체화돼 진행된다. 박재성 기자

## 홍준표 "4·10 총선 제대로 된 의원 뽑자"

### "수조 바닷물 떠먹으며 낚일건 김영선·류성걸 컷오프... 제대로 뽑자"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국민들에게 퍼포먼스, 보여주기식 정치 펼치는 국회의원 말고 제대로 된 의원 뽑자고 신신당부했다.

홍 시장은 8일 SNS를 통해 "지난해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난리, 그 엄청난 상황에서 노랑진 수산시장에 가서 낚일거리며 수조에 있는 바닷물 떠먹던 국회의원들에게 수조에 있는 바닷물 떠먹는 것은 멍게나 해삼이나 할 짓이지 국회의원이 할 짓은 아니라고 질타한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천에서 그 사람들 모두 컷오프됐다"며 국민의힘 5선 김영선 의원과 재선 류성걸 의원이 각각 경남 창원 의창과 대구 동구갑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국회의원은 국사를 보는 직업이다. 이번에는 제발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뽑자"고 호소했다.

지난해 6월,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별로 수산 시장을 찾아 회식하면서 안전함을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영선 의원과 류성걸 의원은 6월 30일 노랑진 수산시장을 찾

아 상인에게 "이 물을 먹어도 되냐"고 물으면서 수조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마시는 등 이른바 바닷물 떠먹쇼를 펼쳤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에게도 먹여볼 것을 권했다.

이에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수조 물을 떠 마신 뒤 "이거 완전 바닷물인데, 짠조름해"하자 김 의원은 "이게 2011년에 방류해서 우리 근해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진한 거야"라고 호응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옛날에는 뇌물송구명탁, 지금은 생선송구회탁 이런 식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정치적인 선택을 왜 해곡하고 있느냐"며 "그래서 내가 방사선파에 뇌물송구명탁, 튀겨지는지 뇌물송구 되는지 보러 떠 먹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여은 기자

### 동구청, 슬레이트 처리 지원

동구청은새달 26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44동(주택 38, 비주택 6), 주택 지붕 개량 4동의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은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축사·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의 최대 200㎡까지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선정된 건축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 지원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등을 구비, 동구청 환경과(662-4115)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 실시

동구신암3동새마을협의회(회장 박상동)·부녀회(회장 최영분)는 지난 6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를 가졌다.

나눔 행사는 회원들이 손수 손질한 식재료로 고추장을 직접 담가 정성껏 포장해 관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50여 세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상동 신암3동장은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고추장을 드시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중구청, 마약 접근 환경 뿌리뽑는다

#### 대구서 첫 다자간 마약류 중독예방 안전망 업무협약

중구청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관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마약류 중독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류규하 중구청장과 이점형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해당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약물 오남용 폐해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여 암암리에 10대들에게 침투하고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최초로 지난해 10월 다자간 마약류 중독 예방 업무협약을 맺은 5개 기관(중구청, 중부경찰청,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중구약사회, (사)한국유형음식업중앙회대구광역시지회)와 함께 동부교육지원청과의 협약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 아동·청소년 대상의 마약류 중독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구 관내 초·중·고 학교에 마약류 중독 예방 안전교육 지원 △마약류 중독 예방 합동 캠페인 참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 100년전 대구 중구청은 어떤 모습일까?

### 중구청-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사진으로 보는 중구 100년 사진전

중구청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은 새달 28일 까지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 1층 현관에서 대구 중구의 100년간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는 '중구 100년 사진전'을 연다.

전시에는 189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구의 역사적인 순간과 섬세한 삶의 흔적을 담은 사진 1백 여점을 주제별로 전시한다.

주제는 △해방전 △정치와 광장 △관공서 △대구역과 도로 △교육 등으로 중구의 역사적 장소와 건축물, 거리 풍경, 근현대 생활상과 중구의 지난 역사와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의 역사를 기록한 중구 100년 사진전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회는 지난 1월 봉산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전시회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열리는 두번째 전시회이다. 조미경 기자



### 대구은행 SNS홍보단 '디플' 4기 본격 활동

DGB대구은행이 대국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단 'DGB Player : 디플' 4기 멤버들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디플 4기 멤버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운영하고 있는 18명으로 오는 11월까지 활동한다. 2021년 첫 멤버를 모집한 디플은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다양한 마케팅 활동 등을 고객 관점에서 경험, 이를 개인이

운영하는 다양한 SNS 계정을 통해 자유롭게 게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디플 4기는 i뱅크 앱 개선 방안에 주력하는 의견을 나눠 다양한 세대의 아이디어와 반응을 수용, 다양한 시각으로 DGB를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이철우, “지금 환자 곁을 지키는 여러분이 영웅”

## 안동병원 찾아 의사 본분 지키는 현장 의료진의 헌신 존경과 감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안동병원 병원장과 의료진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현장 점검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현장을 지키는 인력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가운데, 진료 상황을 살피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응급실 운영 상황 확인을 시작으로 환자들이 있는 병동을 방문해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채유를 받았다.

응급실에 들른 이 지사는 의료진에게 “지금 이 상황을 지키는 여러분이 영웅이다”며 격려했다.

이후 병원장과 만나 의료진의 노고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 진료 대책과 응급환자 대

응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지사는 “고령인구가 많은 경북의 주민들은 더욱 마음을 졸이고 불안해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때에, 의사의 본분을 지키며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경북 북부의 의료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전공의 수련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실국장급 전담 책임관 지정 △3개 도입의료원 평일 2시간 연장근무 및 주말·공휴일 운영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의료진 수당 지급 △의료현장으로 조속한 복귀를 바라는 호소문 발표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 경북 '자율형 공립고 2.0' 5교 선정

### 경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연계 교육혁신 모델 적용 교육력 향상

올해 교육부가 새로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신규학교에 포항고, 포항여고, 구미고, 안동여고, 울릉고 등 총 5교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5교는 올해 9월부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 지역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 모델이 돼 지역 내 학교가 다 함께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는 지정 후 5년간 △자사 체대학기업과 협약 체결 △자사고와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개방형 교장공모제 실시 △교사 정원 50% 초빙 임용 가능 △학생 우선선발 등이 가능해진다.

자율형공립고 2.0 학교는 경북 도내 8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전략에 발맞추어 명문고로 탄탄하게 성장할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자율적 교육모델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된 각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자체·지역 대학·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로 협약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으로 특색 있는 교육모델을 운영하여 지역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신규 자율형공립고 2.0 5교와 기존 자율형공립고 10교를 대상으로 △생각을 다지는 질문 탐구 수업 운영 △지역대학 연계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차량 지원 △특목고 교육과정 운영 등의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대구시, 2024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 역대 최다 700여개사 참가 구매·수출·벤처 투자 상담

대구시가 '2024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한다.

오는 12, 13일 이틀간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엑스코 3관에서 열린다.

국내 유일의 기업종합지원 비즈니스 행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민선8기 출범 후 총 8조 1367억 원의 최대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이번 박람회 참가기업들이 판로·채용·자금 등 여러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람회는 판로·채용·자금 등 기업들의 여러 애로사항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박람회는 기업 수요를 토대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기업·채용 부문의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해 행사의 외연이 대폭 확대된다.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 바이어, 벤처투자사 등 전체 수요처가 287개사로 전년 대비 23개사 증가했다.

참여 중소기업 400여 개사를 포함,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00개사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처음으로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청, 기술보증기금 등 많은 경제단체·공공기관과 신규협력을 강화한다.

지역기업들이 투자유치·판매·수출·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애로사항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열리는 '구매상담회'와 '대기업 구매방점설명회'에는 삼성, SK, 현대, LG, 한화 등 주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111개사가 수요처로 참가한다. '수출상담회'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에 판로개척의 기회를 준다.

수출·초보·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또는 수출성과제고를 돕는 KOTRA 및 한국무역협회와 협업해 추진한다.

미국·캐나다·중국·일본 등 7개국 29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비롯해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26개 전문 무역사가 참여한다.

자동차부품·철강 등 지역 주력 제조업에서부터 화장품·식품 등 소비업종까지 망라한 폭넓은 1:1 수출상담이 이뤄진다.

행사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짧은 업력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지역 스타트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육성 프

로그램인 기술창업지원(TIPS) 운영사 7개사 및 국내외 VC(벤처투자사) 15개사로부터 IR 피칭 컨설팅과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유망기업들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도달을 돕는다.

대구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고용지원프로그램에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대구유망기업 채용관'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기술인재 채용관으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현지자들과 커리어 관련 양방향 소통을 나누는 '채용오픈스튜디오'도 고졸 등 다양한 배경의 구직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참가기업 풀을 확대한다.

박람회 기간 대구시를 포함,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제청, 조달청 등 8개 기관이 합동으로 기업애로상담부스를 상시 운영한다. TK신공항 부스에서는 성공적인 SPC 구성과 후속지 개발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한다. 기관별 핵심시책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개별상담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풀어줄 '기업지원시책 종합설명회'도 지원분야를 나눠 양일간 진행한다.

'2024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의 수요기업 리스트와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누리집(www.onestopfair.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활한 참관을 위해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빠른 입장이 가능하다. 황태용 기자

## 대구·경북 지난해 겨울철 강수량 역대 1위...

### 강수량 평년보다 2.8배 많아 기온 평년보다 1.7도 높아 2위

지난 겨울철(2023년 12월~2024년 2월) 대구·경북에 내린 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강수일수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8일 '2023년 겨울철 기후분석 결과'에서 지난 겨울 대구·경북 강수량이 209.0mm로 평년(73.8mm) 대비 286.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 강수량이라는 기상청의 설명이다.

강수일수도 평년 대비 12.6일 더 많은 27.8일로 역대 겨울 중 가장 길었다. 이는 평년보다 따뜻하고 습한 남풍 계열 바람이 자주 유입되고,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태용 기자

지난 겨울은 많은 양의 비와 함께 이상고온 현상도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의 평균기온이 2.4도로 평년(0.7±0.4도)보다 1.7도 높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8~10일 3일간 대구·경북 곳곳에서 12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보였다. 지난달 19일 영천과 영주는 일평균기온 14.4도, 11.2도를 각각 기록하며 2월 일평균기온 2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함동주 대구기상청장은 “지난 겨울 미국은 한파와 폭우, 유럽은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역대 가장 많은 겨울철 강수량을 기록했다”며 “이상기후에 대한 감시와 분석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기상과 극한기후 정보를 확대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꽃 피는 시기 빨라져 과수 재배농가 저온피해 가능성 ↑

### 과수농가 매년 반복되는 4월 초 저온·서리 등 기상변화 대비해야

경북농업기술원(농기원)이 과수의 발아(눈 트는 때)가 빨라지고 있다며 재배농가에 저온피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군위 기준)는 만개기(꽃이 활짝 피는 시기)가 오후 4월 15일, 후지 4월 18일로 예측돼 평년 대비 8~10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배(상주 기준) 만개기는 평년 대비 5~7일 빠른 4월 14일~16일, 복숭아(청도 기준)는 평년보다 7~9일 빠른 4월 2일~4일로 예측된다.

주요 과수는 개화기 전후 최저기온 -2도 내외에서(사과 -2.2도, 배 -1.7도, 복숭아 -2.3도) 저

온피해가 발생한다. 꽃이 저온 피해를 보면 수정률이 낮아지면서 기형과가 발생하고 조기 낙과 등으로 이어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과원은 꽃눈 발아가 시작되면 로터리 작업, 수관 하부 예초, 피복물 제거 등으로 태양열을 토양 내에 흡수시키고 방풍망 등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망은 말아주며, 저온 발생 하루 전 토양 내 30cm까지 충분히 관수해 밤 사이 방열 효과를 내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상층부의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보내는 열풍방산팬 △물이 얼 때 발생하는 잠열을 이용한 미세살수 시설 △보일러를 이용해 미온수 증기로 과원 내 온도를 높이는 미온수

살수 시스템 등 적극적인 저온 피해 예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수확 후 낙엽기 무렵 요소와 붕산을 살포하지 않았으면 올해 요소 0.3%(1.5kg/500L)와 붕산 0.1%(0.5kg/500L)를 연면적비하면 개화기 저온 피해경감과 착과량 증진에 도움이 된다.

사과는 발아가 녹색기, 배는 꽃눈 발아 직후와 전엽 전(발아기와 전엽기 사이) 혼용해 살포하거나 화상병 1차 방제약제에 혼용해 살포, 다만 요소와 붕산은 고농도 살포시 꽃눈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권장 농도를 지켜 살포해야 한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4월 초 저온·서리 등 기상변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 하룻밤 새 터지고 불나고 경북 폭발·화재사고 얼룩

경북에서 지난 8일 하루동안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경 봉화군 석포제련소 제1공장 냉각탑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이던 A(52)대가 낙하물에 부딪혀 숨졌다.

같은날 오전 7시 28분경 영덕군 축산면 한 공장에서 콘크리트 인공어초를 옮기던 크레인의 붐(지지대)이 부러지면서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A(50대)씨를 덮쳤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숨졌다. 이날 새벽 오전 4시 20분경 고령군 다산면의 한 공장내 기숙사에서 불이났다.

이 불로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10명이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주 폐비닐 재생공장 용융로 용융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후 1시 59분경 경주시 건천읍 폐비닐을 재생하는 A공장에서 용융로 용융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철골조 칼라강판 2층 227평 중 15평이 파손되고 용융로 1기가 불에 탔다. 소방서 추산 3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방종합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에코물센터 방문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과 맑은 물 정책과 일행이 경주시 에코물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의 환

경기초시설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지난 7일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장과 연구시설을 견학했다. 조현애 국장은 "경주지역 환경기초시설 일반

현황과 2025년 국비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 현안문제에 대해 보고받고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주시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경상북도 해외물산업 진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에 날아든 대상 수상... 잇따른 낭보 경사났네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 ESG경영 부문 대상 수상 전국 최초 어촌·어항재생 사업 관리평가 대상 수상

경주시에 잇따른 낭보가 날아왔다.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 ESG경영 부문 대상에 이어 전국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평가서 대상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 ESG부문 대상 경주시가 '제9회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 ESG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연합회 등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상은 정치, 경제, 문화예술, 경영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시는 △ESG경영 모범도시 실천 로드맵 설정 △2050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추진(예정)

△경주형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제 시행 △탄소중립 실천 추진전략 구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ESG 경영 모범도시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경주형ESG 실행계획 및 지표를 발굴했다.

현재 환경경영(Environment)분야 56건, 사회적 책임(Social) 분야 59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분야 27건 등 총 142건의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올 2월부터는 학생, 주부,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자발적 실천유도로 탄소중립 시민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4월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가진다.

환경경영 분야 중 지난해 전기·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144가구가 1315만원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주형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제도는 심사위원들의 큰 호평을 얻었다.

사회적 책임 분야 중 경주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제15회 다산목민대상에 선정되면서 받은 1000만원 포상금을 주택화재로 부상을 입은 고려인 동포 모녀에게 전달한

기부금은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도출, 연도별·부문별 대응대책 발굴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토록 했다.

시는 향후 단계별 지속가능경영(ESG) 컨설팅 추진으로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포럼 개최로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인식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ESG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주시장은 "오늘 수상을 계기로 시정 전 분야에 대해 ESG 범주 내 정책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안전·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주요업무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 전국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평가 대상 수상

경주시가 전국 최고의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1등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평가는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국 11개 시도와 62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실적 집행률, 우수 사례, 준공현황, 사전절차 추진현황 등을 평가해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5곳 중 수렴항, 연동항, 나정항 등 3곳의 조기 준공과 적사항, 가곡항 2곳의 사업 추진율 성과를 인정받았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곳의 사전 행정절차 추진 현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렴항의 월파방지시설(이안제) 설치 민원, 카페 및 포차마당의 소득사업 관련 주민 충돌 민원 등의 발생 시 전문가와 경주시의 적

극적인 협업·소통 행정으로 인한 갈등 해결과 주민참여 유도는 관리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어촌뉴딜 300사업 중 하나인 사전 월파방지시설 설치로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 내습 시 피해를 최소화 한 점은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연동마을축제(4월), 연동야장(6월), 동해안 오션시 등대음악회(6월) 등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려 경주바다를 전국에 알릴 수 있게 했다.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운영 예산 확보와 주민 채용 등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경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

앞으로 추진되는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지역의 활력과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해양문화와 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



김성희 부시장이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2024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수상 후 경주시청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같은날 윤창호(왼쪽에서 네번째) 해양수산과장을 포함한 수상자들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같은날 윤창호(왼쪽에서 네번째) 해양수산과장을 포함한 수상자들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5000만 관광객 유치 시동 부르릉

한국여행업협회 업무협약 관광상품 개발·운영 따른 판매증진 상호 협력 약속

경주시와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5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광 활성화와 관광유망사업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주낙영시장,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 및

각여행업대표 등 20명이 참석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한 마케팅 협력지원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연계 관광상품 판매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협약과 함께 한국여행업협회 특별위원으로 가입돼 국내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여행사와 관광유망사업개발 및 홍보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공격적 관광홍보활동을 한다.

한국여행업협회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1991년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정회원 2152개사, 특별회원 77개사가 가입돼 있으며, 여행업계 및 회원의 권익 증진, 여행업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광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에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 출시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더불어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들의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많은 홍보활동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앞장

경주 행복항촌, 경주발지역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주시는 경주역 동편(성동·황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인 황촌마을활력소에서 경주시발전협의회와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용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발전협의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황촌마을활력소에서 경주시민대학을 진행한다.

경주시민대학은 새달 20~11월 2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경주의 미래, 미래의 경주,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플레이터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시는 경주시발전협의회와 업무협약으로 시민에게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알리고 거점시설을 적극 활용, 쇠퇴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의 골목

경제 활성화에 한 몫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황촌마을활력소는 현재 도시재생·주민자율 프로그램, 사업설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에 교육 및 회의장소를 대어 활용되고 있다.

전성환(사)경주시발전협의회장은 "경주시민대학을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황촌마을 활력소에서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주시민 뿐만 아니라 인문학 및 문화 강좌 인프리카가 부족한 황촌 주민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민대학 진행을 행복항촌에서 운영하는 경주발전협의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462대 구매비용 지원

전기승용차, 화물차 대당 100만원 추가 지원 확정

경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차 460대, 화물차 182대, 승합(버스)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반기 나뉜다. 상반기 지원규모는 462대(승용 314, 화물 144, 승합 4)이며,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는 지원규모는 187대(승용 146, 화물 38, 승합 3)이다.

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전기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해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특별히 추가 지원한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만원~1390만원, 화물차 399만원~2118만원 차등 지원된다.

단전기택시 구입의 경우 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

서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원시스템의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2021년 356대(61억 1320만원) △2022년 795대(지원금 119억 640만원) △2023년 582대(지원금 88억 338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수정)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상반기 전기자동차 462대 구매비용 지원

경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차 460대, 화물차 182대, 승합(버스)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반기 나뉜다. 상반기 지원규모는 462대(승용 314, 화물 144, 승합 4)이며,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는 지원규모는 187대(승용 146,

화물 38, 승합 3)이다.

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전기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해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특별히 추가 지원한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만원~1390만원, 화물차 399만원~2118만원 차등 지원된다. 단전기택시 구입의 경우 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

###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영양군, 한 해 안녕 기원  
청기면민 화합 웃놀이 대회

영양군 청기면 청년회가 한 해 농사와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면민 화합 민속 웃놀이 대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5명 1개팀으로 구성된 약 60개 팀이 새봄을 맞아 청기면의 화합과 흥을 기원하며 웃놀이 한마당을 펼쳤다.

행사는 청기면 온누리 풍물패의 신명나는 길놀이와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주민자치센터 난타교실 수강생들의 난타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진행됐다.

청기면 18개리의 모든 마을이 참가해 웃놀이 대회를 펼쳤고, 면민들은 청년회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

이웃친 청기면장은 "바쁜 영농철에 참석해주신 면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민속웃놀이 한마당은 4개의 웃가락이 서로 어울리듯 청기면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행복한 청기면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치중 면청년회장은 "청기면민의 화합을 위한 웃놀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흥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권윤홍 기자



청도군, 저출생 대응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청도군은 2024년 경북도 저출생 대응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몽쳐야산다' 돌봄 프로젝트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본 공모사업은 사군 주도의 맞춤형 사업발굴을 유도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도군 선정사업인 '몽쳐야산다' 돌봄 프로젝트는 온마을배우터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거점을 설정한 후, 자생 육아돌봄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를 위한 '방과 후 돌봄'은 마을탐험대, 필살기(필요한 삶의 기술), 부모를 위한 '퇴근 후 돌봄'은 부모식탁, 부모 뭉-맘 돌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마카몽침'은 쓰담데이(쓰레기 줍기), 키즈 플라마켓 등으로 구성됐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도를 돌봄친화 지역으로 조성하는 일에 이바지할 기가 대하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산소카페 청송군

### 정주서비스 기능과 편의·이용시설 확충으로 활력이 넘치는 '청송' 조성

청송군은 갑진년을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농촌공간 조성'이다.

이를 위해 정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편의·이용시설을 확충해 활력이 넘치는 농촌공간을 조성하고자 4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이 행복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농촌공간 정비 및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건설, 낙후된 시가지의 도시재생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또 안정적인 영농수행 기반 마련과 농촌일손부족 해소 등의 세부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했다.

#### ■ 청송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청송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중심거점지역인 청송읍행정복지센터 신축 공간에 문화 및 집회시설도 함께 조성해 경쟁력 있는 새로운 농촌중심지로 가꾼다.

마을만들기 사업(각산리, 송강2리, 고와리, 장전2리)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속1리, 신점리, 거대리)도 한창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진입로 확장, 담장 정비, 마을 쉼터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안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 맞춤 교육을 통해 청송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지역의 특성이 돋보이는 마을 조성에 기여한다. 또한 체계적인 농촌공간 정비를 위해 청송읍 중앙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신호없는 교차로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및 깔끔한 경관을 조성해 청송의 이미지를 새롭게 제고한다.

아울러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청송읍 덕리지구 선정돼 작년 3월부터 추진 중에 있다.

총 180억원의 예산으로 청송읍 덕리 일원(면적 37,689㎡)에 유해시설정비사업(축사 7동, 우사·견사 12동, 기타 창고 7동 등을 철거) 추진으로 악취와 소음 등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민원을 해



결한다.

또 재생사업(공공임대주택, 편의시설 조성) 및 역량강화사업(주민교육, 전문인력 양성, 홍보 마케팅 등)으로 청송의 정주서비스 개선 및 주민 여가생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청송군관리계획을 재정비...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체계 구축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청송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해 군계획시설 등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난개발과 부적절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해 주민의 정주기반과 산업생산기능의 조화를 달성한다.

낙후된 시가지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진보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청송읍곡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도 추진 중이다.

진보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범죄예방 골목길 조성,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노후주택 집주리 등을 완료했다.

현재는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의 세부 사업이 추진 중이며 내년 연말 진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

성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진보면 진보로 전선지중화사업'은 현재 진보면 진안~이촌~각산 일원으로 공사 진행 중이며, 전선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산소카페 청송군'의 청정 이미지 개선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

청송읍곡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은 구 보건의료원 자리에 '5080 천문샬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중에 있다.

통합형 소통공간을 조성해 창업지원, 건강문화, 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5080 신중년층 세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 ■ 안정적 영농수행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촌에서 살아가기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숙박, 농촌체험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귀농인들에게는 영농기술과 정보습득 활동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등 미래농업인력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진 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해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수익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사과재배, 고추 수확, 사과수확 등의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350여 농가, 연 4000명 정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시행해 외국지체와 MOU 체결 및 결혼이민자 가족 및 친척 초청방식으로 90여 농가에 300명 정도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

과중한 농작업 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출산농가 영농도움 지원, 행복바우처 지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공동식사시설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도 시행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쾌적한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청송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 청도군, 202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본격 시동

국비 74건 1751억원

도비 31건 243억원 확보

청도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청도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관·과·소장 및 팀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경북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 현황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2025년 국비 건의 사업은 총 1751억원(74건), 도비 건의 사업은 243억원(31

건)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30억원) △매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100억원) △범곡네거리-모강교차로간 국도4차로 확장(139억원)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개선 7단계 기본계획(100억원) △금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20억원) △운문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50억원) △화양읍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62억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244억원) 등이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이 신바람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 주기 바란다"라며, "예산요구 마감까지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중앙부처와 경북도에 방문하여 사업타당성 설명 및 지원 요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 울릉도 특산 가공제품 민간 기술이전 설명회

경북농업기술원, 울릉군 공동연구 성과물 민간 기술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울릉군은 "지역특산물로 개발한 가공제품에 대한 민간 기술이전 설명회"를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특산물 가공업체대표, 농업인 단체, 농산물가공아카데미교육생, 슬로푸드 울릉군지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울릉군과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지난 3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공동개발한 가공제품들을 전시하고 제품들에 대한 시음, 시식 등 품평회도 겸했다.

#### 청송군, 배출가스 4·5등급

#### 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

청송군은 11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이번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폐차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이날 소개되는 울릉도 특산 가공제품들 중 주류에는 마가목와인, 마가목발효주, 옥수수엿정주, 호박청주, 마가목스파클링와인과 산채류로는 부지깅이만두, 전호만두, 발효갈솥을 이용한 섬썩부쟁이 등 건조분말, 오색칼라떡국떡, 명이김, 산채 절임류 등이 있다.

가정 간편식(HMR)으로 간편하게 즉석 조리할 수 있는 물영근귀해장국건조블럭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제품을 개발한 울릉군농업기술센터 박기찬 농업연구사와 경북농업기술원 윤성관 농업연구사가 직접 제품개발과정에 대한 소개와 민간에 기술이전하는 절차를 설명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 높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우리지역의 다양한 특산자원을 활용한 연구로 제품을 개발해 온 연구자들과 울릉군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북농업기술원에 감사표현한다"며 "이러한 연구성과들이 단순한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민간에 기술이전되는 계기를 만든 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일로서, 이를 계기로 울릉군 가공산업이 뿌리를 단단히 내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윤환 기자

#### 미스터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폐차된 자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4등급차량 45대, 5등급차량 130대, 노후 건설기계 5대 총 180대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윤병문 기자

###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박남서 영주시장은 11일 오전 영주시의회에서 열리는 제2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최식에 참석한다.



####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의성군에 장학금 기탁

의성군은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가 지난 6일 (제)의성군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는 1985년에 설립됐다.

도내 3624개 전문건설사업자를 회원사로 두어 건설업 진흥, 제도 개선, 회원 복리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박한상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장은 "의성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이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및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주수 (재)의성군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기부해주신 기탁금으로 지역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재성 기자



#### 고령군, 갑진년 값진 동행 치매환자 가족교실운영

고령군은 지난 7일부터 4월 25일까지 2024년 치매환자 가족교실을 운영한다.

고령군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에서 갑진년 값진 동행이라는 명명했다.

'치매환자 가족교실'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의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고, 치매환자 가족 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통한 심리적 부담 경감과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치매환자 가족교실은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싶으나 낮 시간에 프로그램이 진행돼 직장생활과 농사 등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가족들을 대상으로 주1회 야간(18:30~20:30)에 진행된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가 있어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고령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 의성군, 제17회 산수유마을꽃맞이행사 개최

## 모이면 모일수록 아름답다 노오란 산수유꽃의 향연

의성군에서 노오란 산수유 꽃향연이 펼쳐진다.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의성 산수유 마을 일원에서 산수유마을꽃맞이행사가 열린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하는 산수유마을꽃맞이행사는 의성 산수유 마을 일원인 사곡면 화전 2.3리에서 개최된다.

의성군 사곡면에 위치한 산수유꽃마을은 3만여 그루에 달하는 산수유나무들이 군락을 이룬다.

봄이 되면 아름다운 산수유꽃들이 피어나 노란 빛 절경을 볼 수 있는 의성군 대표 관광지다.

행사 기간 중에 방문하면 활짝 핀 산수유꽃의 노란 빛깔과 의성지역 대표작물인 마늘밭의 초록색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며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오래전 자식이 없던 부부가 바위에 처성을 그려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할매할매 바위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산수유마을 꽃맞이행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예술단체와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과 의성 문학 작품전이 진행되며, 청년단체가 운영하는 청년드림마켓에서는 디저트류 먹거리 판매와 아기자기한 디퓨저, 캔들 등을 제작해보는 체험 프로그램, 현장 사진인화 이벤트 등이 운영된다.

이 밖에 사회적경제 & 농특산물 판매장과 먹거리장터도 운영되며 산수유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은 행사기간 중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성읍에서 산수유마을로 직행하는 시내버스를 증설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수유마을 꽃맞이행사에 가족 또는 연인들끼리 놀러와 많은 추억들을 쌓으셨으면 좋겠다"라며 "산수유꽃을 구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새로운 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수유꽃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으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전국 최고(最古)의 산수유 군락지인 산수유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산수유꽃과 함께 행복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영천시 농산물 수출 전문생산단지 신규 지정

### 임고농협 '포도품목' 농산물 수출 전문생산단지 지정·운영 활성화

영천시는 임고농협이 '포도' 품목으로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전문단지)로 신규 지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은 영천시가 지난해부터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정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12월 말 신규 신청해 현지조사와 수출실적·생산기반·안전성 관리 등에 대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합 평가를 통해 금년도 3월 초에 최종 선정됐다.

임고농협 수출전문생산단지는 2개 작목반 27호의 농가가 참여하며 단지면적은 11ha이다.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정으로 수출단지 생산



지난 1월 24일 임고농협 영천 사인머스켓 수출 선적식

기반 구축,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운영관리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생산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는 2005년 금호농협 포도수출단지 지정을 최초로 2021년 영천친환경농업농조합법인 수출단지, 2022년 영천농업협동조합 수출단지 기준 3개 단지에서 이번 임고농협 포도수출단지 신

규 지정으로 포도품목으로 총 4개(64ha, 217호)의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이상기후에 따른 수출 품위 농산물 생산량 저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천시는 지난해 포도 234톤, 256만 5000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전년 대비 10% 증가를 목표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금번 수출전문단지 신규 지정은 행정과 생산자단체 및 농가의 적극적인 수출 참여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 우리 시 농산물 수출과 유통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체계적인 농가 육성과 유통 역량을 강화해 농산물 수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농업인 소득향상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은하 기자

## 박현국 봉화군수, 현장행정에 '집중'

### 군정 주요사업 효과적 추진 위해 소천면 사업장 방문 추진 상황 점검

박현국 봉화군수가 지난 7일 소천면 군정 주요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박현국 군수를 비롯해 면장, 업무소관 팀장과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박현국 군수는 △노루재 폐도 관광지



원화 사업을 비롯해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겨울왕국분천산타마을 관

## 아동친화도시 영주, '우리아이 잘자람 프로젝트' 시작

### 고품격 예술교육, '몸으로 예술놀이' 프로그램 4월 28일까지 주말에 운영 아동의 창의성발달 건강한 성장 지원

영주시는 9일부터 '우리아이 잘자람 프로젝트-몸으로 예술놀이'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28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매주 토·일요일 청소년문화의집 1관 댄스연습실에서 진행된다.

'몸으로 예술놀이'는 몸의 움직임과 미술 및 음악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의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 고품격 예술교육이다.

관내 초등학교생 336명(연인원)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무용가 홍승업(국립현대무용단 초대 예술감독 역임)이 이끄는 '몸으로 예술놀이'인 구소 강사들이 진행한다.

홍승업 예술감독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각

각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작품과 같이 테마별로 구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매영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친화도시 영주에서 올해 처음 '우리아이 잘자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우리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규사업 '우리아이 잘자람 프로젝트'는 △몸으로 예술놀이 △전문연희 체험 교육 △아이! 신나 페스티벌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아이들에게 연중 주제적인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창의성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상기 기자

### 고령군 연조공원에 제1호 맨발길 조성

고령군은 대가야읍 연조공원에 제1호 맨발길을 조성했다.

대가야읍 주산체육관 앞 연조공원은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 산책을 즐기는 곳이다.

이번 맨발길은 총 480m 거리로 구간별 테마를 정해 다양한 걷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모랫길, 황톳길, 마사토길로 정비했다.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인기 있는 맨발걷기 운동은 땅의 표면과 접지함으로써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발바닥을 지압해 뇌를 자극해 치매예방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된다.

맨발걷기 열풍으로 주변에서도 맨발로 걷기 운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지난 8일 대가야읍 이장들도 맨발걷기를 체험하고자 이장회의 후 직접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앞으로 연조공원의 맨발길이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 건강과 활력을 모두 선사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우리군에서는 연조공원 맨발길을 시작으로 다산면 좌학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등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힐링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고령군 연조공원에 제1호 맨발길 조성

### 건강관리는 맨발길 걷기로 시작하세요

고령군은 대가야읍 연조공원에 제1호 맨발길을 조성했다. 대가야읍 주산체육관 앞 연조공원은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 산책을 즐기는 곳이다. 이번 맨발길은 총 480m 거리로 구간별 테마를 정해 다양한 걷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모랫길, 황톳길, 마사토길로 정비했다.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인기 있는 맨발걷기 운동은 땅의 표면과 접지함으로써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발바닥을 지압해 뇌를 자극해 치매예방 뿐만 아니라

라 혈액순환,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된다. 맨발걷기 열풍으로 주변에서도 맨발로 걷기 운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지난 8일 대가야읍 이장들도 맨발걷기를 체험하고자 이장회의 후 직접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앞으로 연조공원의 맨발길이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 건강과 활력을 모두 선사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우리군에서는 연조공원 맨발길을 시작으로 다산면 좌학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등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힐링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의 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조례안(김병창 의원 발의), 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 1·2동)이 발의됐다.

전상기 기자

### 영주시의회, 11일 제279회 임시회 개최

영주시의회는 오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4일간 제279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4일간 치러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 낱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

성주군은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주 대가면, 성주읍에서 14개 사회단체 150여명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은 10개 읍면을 돌며 진행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낱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라는 슬로건 아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군민 모두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성주군은 지난 1월 경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그에 발맞춰 "성주군저출생 대응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분야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환 군수는 "저출생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종합적인 결과로 단기간 내, 어느 한 분야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으로 결혼과 출산,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저출생 극복 사업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재훈 기자



### 상주시, 농촌재생사업 추진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선정

상주시는 합창읍 구항4리 외 6개 마을을 농촌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4년 '농촌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 관계자와 각 분야 전문가가 평가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쇠퇴해가는 농촌의 활력과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거치면서 사업의 적정성, 주민 참여도, 지속발전가능성, 마을 자원의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최종 7개 마을을 선정하여 각 마을당 4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최종 선정된 마을은 이번 달부터 용역을 시행해 각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기초생활인프라구축,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농촌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농촌마을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촌재생 마을만들기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 육군 50사단, 24년 자유의 방패 실전적 통합방위훈련 실시

## 국가 중요시설 방호, 도시지역작전사단의 실제훈련으로 작전계획 검증

육군 50사단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동안 '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연계한 대대별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각급 부대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상황을 부여해 민·관·군·경·소방 諸 요소가 통합된 대규모 FTX를 실시중에 있다.

사단은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즉각 끝 대비태세 완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FS/TIGER 일환으로 김천 LIG넥스원의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50사단의 낙동강여단 장병들을 비롯해 넥스원의 특수경비대, 김천경찰서 및 소방서, 시청 관계자 100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특히 훈련간 각계 전투원의 전투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실전적인 훈련 진행을 위해 '마일즈장비'를 활용한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해 성과를 극대화했다.

훈련은 LIG넥스원 일대에 적의 활동이 식별되면 서 시작됐다.

적은 자폭 드론을 활용하여 시설을 공격하고 도주했다. 이에 민관군경, 소방 제요소가 통합 운영되어 환자 이송을 비롯한 초동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대향군들이 군경 합동검문소를 돌파하고



도주하자, 부대는 전투 가용 요소를 통합하여 신속히 투입해 적을 추적 및 격멸하여 상황을 종료시켰다.

훈련에 참여한 50사단 낙동강여단의 대대장 정문규 중령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을 통

해 전시 중요시설 방호임무를 숙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실제 대향군과 마일즈장비를 활용한 적이 있는 실전적인 훈련으로 전투기술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사단은 남은 FS 연습기간에도 유관기관과 연계

한 통합방위훈련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주 12일(화)부터 14일(목)에도 지역 내 병원과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차, 화폐본부, 댐 등 국가 중요시설 테러에 대한 방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 예천박물관, 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공모사업 선정

### 예천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확충

예천박물관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사립·대학 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 박물관 소장 유물 정리를 위한 국비를 지원받는다.

예천박물관은 한국박물관협회가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공·사립·대학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문화유산 DB화 공모사업'에 지원, 최종 30개 박물관에 선정돼 10개월간 1명의 인력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인력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발한 소장품 관리



시스템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예천박물관 소장 유물을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등록된 유물에 관한 자료들은 누구나 박물관 홈페이지와 이뮤지엄을 통해 검색하고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예천박물관은 2020년 12월 임시 개관 후 꾸준

한 유물 수집과 소장 유물의 등록 작업을 통해 소장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유물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을 통해 유물 2000점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천박물관 관계자는 "예천박물관에 기증·기탁된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고 전시, 교육, 연구에 예천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박물관은 대동운부군옥목관 및 고분, 조선 초기 계미자 간행본 『사시찬요』의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며 지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안병욱 기자

## 경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까지 지원사업' 전 연령으로 확대

경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이다. 신경운 기자

## 울진군, 의료공백 사전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 회의

### 손병복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 울진군 의료공백 대응 조치 점검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본부장 주재로 의료공백 위기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현황보고 및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손병복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포함해 차장, 통합조정관, 8개 실무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령령 주재의 중대본회의와도 재대본회의를 공유하고 우리 군 재대본회의 실무별 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보건소장이 보고한 의료공백 단계별 조치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의료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정수 기자

## 안동시, 공간 제약 없이 마을방송 듣는다

### 핸드폰으로 방송하고, 청취하는 시스템 구축

안동시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2023년 12월 26일부로 2억6천4백만 원을 투입했다.

1~2월에는 스마트마을방송 이상 운용 교육과 동시에 주민동의를 구해 현재 14개 읍·면, 279개 마을, 8152명이 가입해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방송시설이 설치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의 마이크 등으로 방송해 외부 대형스피커 및 대내 수신기로 청취하던 기존의 방송에서 벗어나,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고 핸드폰으로

청취하는 최신의 스마트한 방송이다. 이를 통해 안동시는 정보취약지역에 있는 읍·면 전체 혹은 선택적으로 방송 및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장은 각 마을에 필요한 방송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은 스마트폰으로 안동시 및 마을의 필요정보를 사·공간 제약 없이 들을 수 있게 됐다.

향후 동 지역의 정보취약지역 및 재해위험지구 예상 지역도 서비스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동시는 정보 소외지역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최준길 기자

## 문경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 미취업자에 근속장려금 지원

문경시는 2024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인턴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미취업 청년 등에게 인턴 근무기간 제공과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장기제직을 유도하는 제도다.

참여기업에는 인턴기간인 2개월 동안 인턴사원 1명당 월 150만원씩 총 300만 원을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참여인턴에게는 정규직 전환일부터 3, 10개월 차에 15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문경시 소재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인턴 급여를 월 206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인턴사원 참여자격은 문경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취업 취약계층 등이다.

2024. 1. 1. 이전에 취업해 당해 사업장에 근무 중이거나 병역특례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에 참여해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054-550-6231)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청년 등 미취업자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 구미시, 대중교통 체계 구축... 급행버스 도입 검토

구미시는 지난 8일 '구미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시의회, 기업·교육 관련기관, 교통 전문가, 운수업체, 관련 부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노선 개편의 추진 방향과 목표,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후 참석자들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노선 개편 용역에서는 일정한 배차간격 유지를 위한 노선 고정배차,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급행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장래 도시확장을 고려한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등의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시는 부문별 개선안과 단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운수업체와 지속해서 협의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추후 노선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도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공급 확대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 APEC 경주 유치... 가장 한국다운 모습 역사 세계 알리자

지형 호리병처럼 사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경호·경비 가장 최적화 APEC 정상회의 개최지 도시는 경주 밖에 없다

경주시는 지난달 28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4 피나클 어워드 및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드 '베스트 세계 유산도시와 축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는 아시아권 축제의 질적 수준 향상, 아시아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최하는 대회이다.

이뿐 아니다. 경주시와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손잡고 5000만 관광객 유치를 올인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향한 초석을 다진 셈이다. 경주시가 밝힌 2023년 경주를 찾은 관광객은 4768만717명이다. 2022년 4510만3426명 보다 무려 257만7291명이 늘었다.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위상을 한껏 떨쳤다. 경주시는 APEC 회의가 경주에서 열려야 하는 이유로 "가장 한국다운 모습과 역사를 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도시 못지 않게 중소도시도 경쟁력 갖추고 있다.

그동안 열린 정상회의 가운데 중소도시는 멕시코 로스카보스(200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2012년), 인도네시아 발리(2013년), 베트남 다낭(2017년) 등이 있다. 시는 △2005년 APEC 에너지장관회의 △2012년 APEC 교육장관회의 △2015년 세계물포럼 등 16차례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포항경주공항에 국제노선 전세기 취항이 추진되면 국제관광도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 지난해 11월 국제노선 개설과 전세기 취항을 위해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남방항공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남방항공이 포항경주공항으로의 전세기 취항에 적극적인 만큼 실제 전세기가 취항 되면 중국 관광객의 포항, 경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 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방항공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공사로 중국 3대 국영 항공사 중 하나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240개 항공사 중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경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선 취항이라는 목표 아래 그 첫 단계로 국제노선 부정기편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미 지난 1월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완료했다. 경주 관광 미래 비전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 대응 및 매력적인 관광도시 변모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했다. 관광진흥 계획은 관광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향후 5년(2024-2028년)간 추진할 관광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지역관광의 청사진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글로벌 관광수도로 도시 브랜드 강화 △역사문화자원 기반 융합형 관광사업 육성 △스마트 관광시대 여행하기 편리한 경주여행 △새로운 시각으로 합한 경주 알리기 등 4가지 추진전략, 총 50개 세부 신규 사업을 제시했다. 제시된 세부사업 중 신신라문화제의 글로벌 브랜드화 △글로벌 문화 웰니스 육성 △경주 디저트카니발 등이 눈에 띈다. 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50여 개의 신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확정짓고 적극 추진한다.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명분과 당위성 차고 넘친다. 시는 경북도와 함께 2021년 7월 APEC 유치를 공식 표명했다. APEC 준비된 도시 경주가 최적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260만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돼 유



지에 올인하고 있다.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4점, 국가문화재 등 360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보고이다.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바이블로 불리는 '론니플래닛', '내셔널지오그래픽', '타임지' 등 세계 최고의 저널리스트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꼭 가봐야 할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경주를 소개하고 있다. APEC이 개최될 11월은 형형색색의 단풍 최절정기로 세계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석굴암, 동궁과 월지, 대릉원, 첨성대, 월정교에서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 소개된다면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다.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비, 외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글로

벌 공무원 서포터즈단을 발족했다. 서포터즈단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통역이 가능한 22개 부서 34명이다. 이들은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이자 준비된 도시임을 알리며 홍보 활동을 한다. 실제 행사 개최 시 통역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국제행사 운영과 의전 등 관련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지방 외교시대를 맞아 국제화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다. 현재 APEC 유치 4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부산,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는 경주

뿐이다. APEC의 포용적 성장가치(소규모 도시 개최)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점에서 경주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2014년 경주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됐다. 보문관광단지 일대 178만㎡가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 APEC 유치를 탄력을 받고 있다. 주희의장인 컨벤션센터 증축도 2024년 마무리 된다. 인근의 포항경주공항을 비롯해 1시간대의 김해·대구·울산공항과 KTX경주역,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팔달 완벽한 교통체계도 큰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적인 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핵심인 경호와 안전이다. 보문단지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3분 거리에 위치, 이동 동선이 매우

짧고, 바다와 접해있지 않아 해상은 물론 시가지, 주요도로 등을 봉쇄해야 할 시민 불편은 전혀 없다. 지형이 호리병처럼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경호 경비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다. 주희의장 주위에 높은 고층건물이 없어 정상 경호와 안전에 있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다. 2005년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될 때 한미정상회담은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린 것은 그만큼 경호·안전 최적지임을 반증하고 있다. 경주는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한수원 본사, 월성원전, 혁신원자력 연구단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양성자가속기센터,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등 원전·미래차 첨단과학산업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 유치로

한국의 원전과 에너지산업을 세일즈 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인접한 울산의 완성차·조선, 포항의 철강·2차전지, 구미 전자·반도체, 안동의 바이오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경제기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불과 85일 만에 25만 경주인구 보다 약 6배 많은 146만3874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단체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나선 결과였다. 때문에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는 경주 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성용 기자